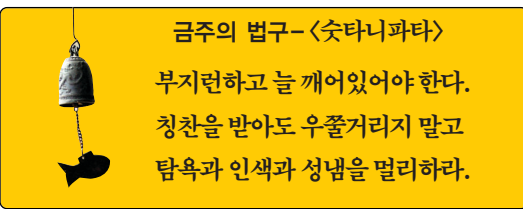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
“자비실천과 전법은
돌이 아납니다”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3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88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문화재 수리 혁신 대책 ‘허술’

문화재청이 4월 9일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실명제 등 25개 방안을 담은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불교계에도 이에 발맞추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자료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재료 인증제 및 목재 수리지 조성 부문, 전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이다. 문화재청은 단절됐거나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재료·기법의 계승·복원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재 복원용 목재 수리지 조성, 전통기술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은 “불교계 사찰은 전통적인 기법이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찰들이 목재 수리지 조성 등에 연계해 참여했으면 한다”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 보존해 오고 있는 만큼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교계 전문가들은 불교계에서도 전통기술 육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운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연구소 실장은 “전통기술을 보유한 이들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가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이 전통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돼왔다. 불교계에서는 예전부

에 참여한 인력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설계 도면 등 각종 자료와 공사 현장도 일반에 공개된다.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 실기와 현장실무 중심으로 개편될 뿐만 아니라 수리공사 감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황영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수리기술자 의무보유제 폐지, 감리에 시민 옵부즈맨제도 도입

보수과정에서의 ‘자본적 보조 사업’ 과정의 예산 전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본적 보조 사업”이란 사찰 등의 문화재 보유자가 공사를 위해 20%의 예산을 갖추고 정부 보조를 신청하면 80%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부분이다.

황 소장은 “수리가 잘되면 모르는 데, 일부 금액이 유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수리업 등록요건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수리기술(기능)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입찰제도도 기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 지표의 개발하고, 부실 공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 수리 시험은 관련 경력 공무원에게 주던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중요문화재 ‘수리실명제’ 도입 등 25개 방안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발표

촉박한 공사기간 등 실질적 개선책 세우야

터 스님들을 축으로 전통문화가 이어왔다. 성과주의를 떠나 긴 시간을 갖고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 차원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화재청이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 수리공사

등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이번 대책에는 문화재 수리 공사의 부실을 부르는 고질적 이유로 지적돼온 촉박한 공사기간 문제, 공무원·자문위원 등과 수리업체 간의 유착 등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특히 문화재 수리나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10일 조계사에서 종단 개혁 2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교육원장 현승 스님의 낭독으로 법회 참가자들이 실천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불교 개혁 새로운 의지 세우자”

조계종, 10일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법회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새 의지를 다지는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10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의 유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스모 출가수행자는 대오견성 생사해탈의 신심을 드높일 것 스승의 삶을 외면하지 말 것 스바른 참선법을 세계화해 종단 개혁불사를 완성해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밀운 스님은 유시로 ‘무원근(無遠近)’을 내리면서 호소문도 함께 발표했다. 밀운 스님은 “불교는 화합과 자비문중”이라며 “앞서 갈등으로 멀린 스님들이 시간이 지나 사면면 경우가 많다. 종단 개혁 20주년을 자축하면서 당시 멀린 8명의 스님들을 사면복원해달라”고 제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념사에서 “종단의 새로운 20년을 밝게 열기 위해서도 개혁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하며 그 정신은 매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며 “오늘은 20년 전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다

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새로운 개혁의지에 대한 다짐이 이어졌다. 덕승 총림 수석사 방장 설정 스님은 “외형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부대중 개개인이 신심으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면서 “개혁의 20주년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개혁 의지를 다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서는 종단 개혁불사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실천 선언문과 개혁불사의 주요 참가자인 청화 스님(前 교육원장)이 기념사 ‘크게 울린 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3면> 신성민 기자

서울 9호선 929역 ‘봉은사역’ 확정

서울 지하철 9호선 929역 역명이 ‘봉은사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4월 9일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9호선 929역 역명으로 ‘봉은사(코엑스)역’을 최종 결정했다.

봉은사는 “지하철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 공익성, 형평성, 이용시민의 편의성, 관광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봉은사로, 봉은교,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봉은역사공원 등 지하철 929역 인근의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봉은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929역은 지역 대표 명칭을 살린 봉은사역이 되어야 한다”며 역명 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결과 강남구청이 지난 1월 지하철 9호선 929역에 대한 선호 역명을 설문조사에서 봉은사역 58%, 코엑스역 35%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서울시 최종 방침 결정과 서울시보 고시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외사찰 관리·지원 중장기 대책 시급”

해외에 우후죽순적으로 산재된 사찰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조계종 내 해외사찰과 포교를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사회부와 국제교류위원회는 4월 11일 화계사에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단 해외사찰 관리 전담부서가 총무부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부로 이관되면서 총체적인 현황과 향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국제교류위원 정범 스님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해외 사찰 관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범 스님은 현재 해외 사찰은 설립 방식의 차이를 비롯해 △주지 인

사제도 미비 △장기적 전력 부재 △전담 인력 전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스님은 “대부분의 해외 사찰들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스님은 법인 구성원의 일원이 돼 주지

조계종, 11일 관련 토론회 인사 시스템 미비 등 ‘난국’ 국제부·전담지원센터 등 상설기구 조속 설립돼야

가 권한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개인 능력으로 창건된 사찰은 종단의 영향력과 관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님은 △국

제 업무 협의 체계 상설화 △해외교구법 개정 △국제부 및 해외특별교구지원사찰 설립 △조계종 해외법인 설립 △인력 양성 및 파견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정범 스님은 “조계종의 국제화는 일개 법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해외 포교와 한국불교 세계화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 체계는 비롯해 국제부와 해외특별교구지원사찰들이 확대·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찰들은 1세대 스님이 입적할 경우 운영·관리에 난맥을 보인다”면서 “현지 조계종 법인을 설립해 재산을 유지·보존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88호 INDEX

시방세계 5

선지식 해안 스님 ‘생전 장례식’ 재현



연등회 및 봉축행사 일정 2·6

복지 7

승가원 장애바로알기센터 1주년

함께가요 강의실 8

양형진 고려대 교수 ‘과학과 불교’

불교로 읽는 고전 24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上)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 호국불교조계종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준비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발원하여 해당부분 전 종도 아래와 같이 제방에 준비 공고 합니다. (특히 법계 품수자는 준비에 만전을 기여할 것)

원로원장 대응
교육원장 봉덕 고시위원장 일봉 고시위원 혜명, 대일, 의광, 무어
고시부위원장 옹현

- ※ 사미계
- ※ 구족계 산림
- ※ 법계 고시
- 장소 : 법계고시사 관음정사(부산역 앞)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관음정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부산역) 문의처 : 총무 010-4566-4504, 051)442-5658, 468-5657 팩스 051)442-5659
호국불교조계종 http://jogyong.kr / 관음정사 www.happybuda.kr / E-mail : OK-1207@hanmail.net

(社)護國佛教 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우리출 체조, 한국무용, 불교무용 연구소

- 원장 : 조론심
-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30 051)512-0115, 010-3834-6677
- 우리출, 체조 전문지도 자격증반 수시 모집중!

수봉전자 (불교음형기기 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http://www.kukjeav.com
- 010-3832-8855 수봉 합장